

미국 한인의 삶 담은 영화 '미나리', 기생충 이어 아카데미 점령할까?

내년 아카데미 시상식의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리 아이작 정(정이사) 감독의 자전적 영화 '미나리'가 미국 비평가협회 영화상에서 첫 작품상을 받았다.

5일 미국 연예매체 버라이어티에 따르면 노스캐롤라이나비평가협회는 전날 '미나리'를 최고상인 작품상에 선정했다고 밝혔다. 미나리는 이 영화상에서 윤여정이 여우조연상, 정 감독이 각본상, 배우 윌 패튼의 '켄 헝크 메모리얼 타힐상'까지 수상하며 4관왕에 올랐다.

앞서 '미나리'는 지난해 11월 덴버국제영화제에서 관객상을 수상했다. 과거 덴버국제영화제에서 관객상을 받은 '그린 북', '쓰리 빌보드' 등은 아카데미에서도 수상한 바 있다.

당시 미국 매체 버라이어티는 '미나리'가 2021년 오스카 시상식에서 작품상, 감독상, 남우주연상, 여우조연상, 각본상, 음악상 등을 받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보다 앞서 '미나리'는 지난해 2월 제36회 선댄스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과 관객상, 여우조연상(윤여정)을 수상했다. 이에 할리우드 연예 매체인 베니티 페어는 '2020년 최고의 영화 10편'에 '미나리'를 선정했다. 또 할리우드리포터는 '2021 오스카 유력 후보' 기사에서 작품상, 감독상, 연기상, 각본상 부문에 '미나리'를 집중 조명했으며 연기상으로 배우 스티븐 연, 한예리, 윤여정 등을 수상 후보로 거론했다.

미국 매체 버라이어티도 '미나리'를 지난해 최고의 영화 중 한 편으로 선정했다.

이 매체는 지난달 8일 발표한 '2020년 최고의 영화' (The Best Films of 2020) 리스트에 '미나리'를 포함했다. 이 매체의 수석평론가 글라이머는 '미나리'에 대해 "미국에서 '이민'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우리는 클리셰적인 진부한 이미지를 떠올리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 서정적인 가족드라마는 솔직, 담백한 인류애와 보는 이들을 깨우고 뒤섞는 색다른 연출로 이민이라는 경험 속에 관객들을 데리고 들어간다."고 평했다.

미나리는 지난달 보스턴비평가협회에서 선정한 여우조연상(윤여정)과 주제가상 등 2관왕을 차지했다. 오스카 4관왕에 올랐던 '기생충'의 경우도 아카데미 시상식 전 보스턴비평가협회에서 감독상, 외국어영화상을 받은 바 있다. 특히 배우 윤여정이 받은 여우조연상은 올해 아카데미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뱅크'의 어맨다 사이프리를 제치고 수상한 것이어서 더 의미가 깊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미나리'를 통해 미국적인 것의 기준에 대한 물음을 던졌다.

베트남계 미국인 유명 작가이자 풀리처상 수상자 비엠탈인 응우옌은 지난 24일 이 신문에 " '미나리'는 한국어를 쓰는 이민자에 대한 영화다. 그렇다고 미나리를 '외국 영화'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다.

응우옌은 " '미나리' 감독인 리 아이작 정(한국명 정이사)은 미국인이고, 미국인 배우를 캐스팅했으며 미국에서 제작됐다."라며 "대사 대부분은 한국어이지만, 이를 외국어 영화로 분류한 결정은 '외국적'으로 만드는 게 도대체 무엇이나는 문제를 강력히 제기했다."라고 주장했다. 미국적이라고 판가름하는 기준이 언어인지, 사람인지 아니면 문화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미나리 포스터. 사진=판시네마

응우옌은 "언어가 '외국적'의 기준이 된다는 주장은 미국에서 백인에겐 사실일 수 있지만 아시아계는 영어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외국인으로 인식되는 듯하다."라며 " '영어', '미국' 자체가 단지 '백인임'과 엮일 때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미국적'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결정하는 기준은 현실 미국 사회에선 언어가 아닌 피부색이 더 개입한다는 것이다.

그는 "스티븐 스피버그 감독이 이디시어(유럽에서 쓰는 유대어) 대사가 대부분인 유대인 이민자의 경험에 대한 영화를 만든다고 치자."라며 "그는 아마 이 영화가 미국 얘기라고 HFPA를 설득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비교했다.

이어 " '미나리'와 다른 점은 스피버그는 당연히 미국인이고 정 감독은 미국에서 역사적으로 항상 외국인 취급을 받은 아시아계 미국인이라는 배경을 지닌 젊은 영화제작자라는 사실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디시어가 미국 언어라면 왜 1900년대 초부터 미국에 산 한국인 이민자가 쓰는 한국어, 19세기부터 이민 온 중국인이 쓰는 중국어는 아닌가?"라고 물었다.

응우옌은 이탈리아어를 구사하는 미국인 가족의 얘기를 다룬 영화 '폴 미 바이 유어 네임'과 독일어와 불어가 대부분 나오는 '바스터즈-거친 녀석들'이 골든글로브 작품상 후보에 올라 상까지 받았다면서 "도대체 이를 어떻게 봐야 하느냐?"고 질문을 던졌다.



▲ '미나리'는 지난해 11월 덴버국제영화제에서 관객상을 수상했다. 미나리 포스터. 사진=덴버국제영화제 홈페이지 캡처

골든글로브를 주관하는 할리우드외신기자협회(HFPA)는 최근 출품작에 대한 연례 심사를 마쳤으며 '미나리'를 외국어영화상 부문으로 분류했다. HFPA는 대화의 50% 이상이 영어가 아닌 경우 외국어 영화로 분류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미나리'는 올해 들어서도 미국 여성영화기자협회 여우조연상(윤여정), 카프리 할리우드 국제영화제 각본상과 음악상을 받은 데 이어 서부 뉴욕 평론가를 중심으로 한 그레이터 웨스턴 뉴욕 비평가협회에서 여우조연상과 외국어영화상을 차지하며 골든 글로브와 아카데미상 수상이 기대되고 있다.

이처럼 각종 영화제에서 수상을 이어가고 미국의 여러 매체가 주목하고 있는 '미나리'는 '문라이트', '노에 12년' 등 아카데미 작품상 수상작을 탄생시킨 브래드 피트의 플랜B가 제작하고, '문라이트', '롬', '레이디 버드', '더 랍스터', '플로리다 프로젝트' 등의 오스카 레이스를 이끈 A24가 북미 배급을 맡아 올해 아카데미에서 수상 가능성이 더욱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나리'는 한국계 미국인인 정 감독이 자전적 경험을 바탕으로 쓰고 연출한 작품으로, 1980년대 아칸소로 이주한 한인 가정의 이야기 담았다. 한국계 미국인인 스티븐 연과 한예리가 부부를, 윤여정이 한국에서 온 할머니를 연기했다.



▲ '미나리'에서 열연을 펼치고 있는 윤여정. 사진=트위터(Sunset Film Circle) (위), 미나리 스틸컷. 사진=판시네마